

# 임실군, 하수처리 모니터링 구축

### 악취 등 문제 발생시 사전 원격 모니터링... 유량계에 자동제어 추가 설치

임실군이 악취 등 하수처리 문제를 주민들의 별도의 전화신고 없이도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10일 임실군은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고장이나 부실로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2년 연속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5월부터 9월까지 9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18개소, 중계펌프장 44개소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 올해에는 작년보다 늘어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 9개소, 중계펌프장 21개소를 대상으로 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7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축작업이 끝나면 하수처리시설 고장 및 민원처리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군은 이미 시범운영 결과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전반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등을 사전에 원격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개선 효과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은 올해 하수처리장 방류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에 자동제어(PLC)도 추가 설치한다. 이를 통해 방류량을 원격으로 관찰하고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 상

태를 유지하고,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전화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야 처리가 가능해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하지만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민원제기 없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최근 조병욱 새만금 지방환경청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물복지 향상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하수관로 설치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상수도 대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추진

### 올 38억원 투입 노후관로 17.5Km 교체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올해 38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교체와 긴급 누수복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남원시는 연말까지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남원시 관내 노후관로 17.5km를 교체하고, 지하로 새는 수도를 누수 발생시 긴급복구를 실시한다.

상수도 관로는 시 전역에 약 957km가 매설되어 있는데, 관 노후 및 부식

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로교체가 요구됨으로 상수도관망 전문진단 보고서(2016.1월)에 근거하여 노후정도가 심한 노선부터 정비하며, 공사시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전안 내관을 제작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남원시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35억 원을 투입, 2300여 건의 누수를 찾아 수선하여 수도를 14백만톤이 버려

지는 것을 예방했고, 그 결과 140억 원을 절약했다. 상수도사업 경영지표인 유수율도 그 동안 0.8%(65.6%→76.4%)를 향상시켜 상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로에 들어 고이거나 땅이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 평소 하수관에서 맑은 물이 흐를 경우에는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이므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를 바라며, 누수 의심 신고는 전화(상수도사업소 620-6896)으로 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적극 나서

앞으로 임실군의 생활쓰레기가 전 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분리수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일 임실군은 관내에 소재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이 2022년에 종료되면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권역설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 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생활폐기물을 반입·추진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과 함께 수차례 시설설치부담금 및 세부사항 회의를 가진 결과 4월부터 반입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일일 7.3톤에 달하는 임

실군 생활폐기물은 전 주권광역소각 자원센터에 반입·소각된다.

군은 그동안 각종회의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소각용종량제봉투내에 음식물, 재활용품 등의 혼합배출이 수거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참여한 저조한 상황인어서, 향후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군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될 전 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에 사업비 1,142억 원을 투자해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 2기를 건립, 일일 평균 280여톤

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이다.

전 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소각가 능한 생활폐기물(음식물과 캔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건설폐기물, 유해폐기물)의 반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소각용종량제봉투내 반입금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주민홍보와 함께 혼합배출 수거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 구성

### 18명 선별 프로그램, 선정·정책 개발 주도

순창군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들 스스로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선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문화의 집으로 변신했다.

군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 단체와, 동아리들과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에 앞장선다. 청소년의 요구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사회적 이슈를 다양한 청소년 시각으로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관련해서 최근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서는 1차 운영위원회도 진행됐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와 효율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서원일 위원장(전주YMCA 청소년자치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니 기쁘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끼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제214회 임시회를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4월 1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회기결정 및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87회 춘향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청용면, 민민의날 화합 한마당

임실군 청용면은 제30회 민민의날 화합 한마당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용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금로) 주최로 청용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 한원수 도의원, 기관 및 사회단체장, 재경·재전 향우회장, 면민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인재양성의 기회를 마련한 공모로 박종철씨가 공익장을,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며 경로효친사상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홍성자씨가 효열상을 수상했다.

이어 공골리기, 줄다리기, 투호놀이 등 민속경기를 비롯해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초창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상호 화합하는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마련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CCTV 통합관제 센터 24시간 운영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10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가 군민 안전 지수가 대폭 높아졌다.

특히 군은 지난해에는 여성과 아동들의 야간 이동로바 활동 공간에 CCTV 9대를 별도로 설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획기적 단초도 마련했다. 총 300여대의 CCTV가 통합 운영돼 군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 총 12억원을 투자했으며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군청 2층에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13개 부서에서 용도별로 설치되어 각각 운영 관리되고 있는 아동보호 방범, 재난, 불법쓰레기 투기, 주정차단속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주정차단속 CCTV를 업무시간 종료 후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에 다양화를 통해 범죄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의 예방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빌딩로바, 백화점 매장 등 CCTV 해킹으로 120여개 국가의 CCTV 영상이 실시간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고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순창군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 회선망도 구축해 보안장비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영상정보의 체계적인 열람 및 제공, 파기를 위한 영상반출 시스템도 도입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관제요원 등 분야별 근무요원 3 ~ 4명 과 경찰관 1명이 근무하게 된다.

순창읍 남계리에 거주하는 최모(38, 여)씨는 "밤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아 걸어서 귀가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CCTV 통합관제 센터가 생겨서 마음이 놓인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은 제53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9일까지 '다독다독(多讀多讀)', 내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을 주제로 연체자 부활, '나는야 도서관 박사!', 잡지는 책 보따리', 4월의 책잡피, 그림책 원화 전시, 부모교육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15일 열리는 부모교육은 '사춘기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방송호 아현교 교장을 강사로 초청해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립도서관(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